



전주매일

비상시국 속 도민 안전에 행정력 집결

도, 김관영 도지사 주재 비상시국 대응 현안 간부회의
의료체계 · 동절기 취약계층 돌봄 등 행정서비스 만전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안 간부회의를 갖는 등 비상시국 속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데 가능한 행정력을 집결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현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실국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탄핵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 부서는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민생경제 총력 최우선을 위한 방안 강구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비상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관서 특별경계 근무를 통한 긴급 구조 역량 강화하는 방안도 다뤘다. 이와 함께 최근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지역 민생안정 대책'을 구성해 팀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 상

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세상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하는 우려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감면 요청과 함께, 기업유치지원실장을 상황실장으로 물가대책상황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기관단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비상대응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및 1기 업·1공무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9일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 및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 당부한 바 있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내년 1월 10일까지 도와 시군, 교육청이 함께하는 합동감찰반(103명)을 구성해 자치감사 대상기관 107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추진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비상시국에는 신속하고 통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도는 모든 실국이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尹에 정신적 피해”
국민 손배 소송 제기

“위헌적 계엄 선포로 공포”
총 105명 위자로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이날 김정호·이금규 변호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일반 국민 105명으로,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합의한다. 의미를 담고 있다. 전북에서는 1명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아야 한다며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尹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10 · 반대 63 · 기권 14표로 가결돼

내란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한평생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인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1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동훈 대표의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 상설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대신 자율투표에 나섰다.

이에 김도읍·김상욱·김용태·김형동·배현진·우재준·김예지·조경태·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권영진·김기웅·김종양 등 10여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재훈 기자

도내 중소·벤처 창업기업인들 혁신·협력 지역경제 도약 선포

전북 중소벤처창업기업인의 날 행사 성료... 250여명 참석

유공자 48명에게 도지사 표창 등 수여... 성과 공유·격려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전주시, 익산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한 '전북 중소벤처창업기업인의 날' 행사가 10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의 중소·벤처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유관기관 임직원과 중소·벤처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서는 발전협의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각 기관의 강점을 융합해 기업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키는 협업 모델 비전을 선포했다.

발전협의회 이인호 회장은 선포식에서 "산업계의 실무적 전문성, 대학의 창의적 학문적 기반,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역량을 결합한 이번 협업 모델이 지역 기업들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협력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 48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전주시장 표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첨단 기술 개발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유관기관들이 추진한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육성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관별 LED 패널과 성과영상 상영이 진행됐다. 특히, 창업기업들의 기술적 발전과 사업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며, 지역 경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창업과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벤처펀드 조성과 창업·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학연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전북은 글로벌 경제에서 주목받는 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밤(음악회)

2024년 12월 20일(금)

저녁 7시 30분

문화공간 이룸

사회



송미령

1부 출연진



김민숙 명창



색소폰 박보성



통기타 최형준

2부 출연진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송남영

주관: 사단법인 더문화